

For 2021 피램 국어 시리즈

피램' S

기출마무리 for 2021

(1주차) - 문제편



## 지문 목차

### Day 1 ..... 4p

#### 비문학(독서)

[인문] 2018.06 [16~21] '울곡의 수기치안'

[과학] 2013.06 [23~25]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

#### 문학

[현대시] 2016.11AB [43~45] '아침 이미지1,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고전소설] 2020.09 [32~34] '장끼전'

### Day 2 ..... 10p

#### 비문학(독서)

[인문] 2018.09 [38~42] '사회적 공연론'

[과학] 2012.11 [21~24] '음원의 위치'

#### 문학

[현대시] 2017.09 [19~20] '병원, 나무'

[고전시가+수필] 2018.11 [33~37] '비가, 풍란'

### Day 3 ..... 16p

#### 비문학(독서)

[인문] 2020.11 [16~20] '베이지주의'

[사회] 2019.06 [22~26] '사법'

#### 문학

[현대소설] 2018.11 [43~45] '관촌수필'

[현대시+수필] 2017.06 [34~38] '향현, 우리가 물이 되어, 눈'

### Day 4 ..... 24p

#### 비문학(독서)

[사회] 2021.09 [26~30] '행정입법'

[인문] 2016.11B [17~20] '도덕적 운'

#### 문학

[고전시가+현대시] 2019.09 [16~20] '한거십팔곡, 추억에서'

[극문학] 2018.09 [23~26] '불모지'

### Day 5 ..... 32p

#### 비문학(독서)

[기술+예술] 2017.09 [25~30] '콘크리트'

[사회] 2020.06 [27~31] '통화&금융감독 정책'

#### 문학

[현대소설] 2021.06 [34~37]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고전소설] 2020.06 [23~26] '조웅전'

### 빠른 정답 ..... 40p

## 자료 이용법

- ① 2021학년도 수능을 위해 제작한 자료입니다.
- ② 목표는 '파이널 기간, 이 자료로 기출 다 끝내기'입니다.
- ③ 매주 독서/문학 2지문씩 5일치가 나갑니다. 수업을 듣는 하루, 수업 내용 및 5일치를 모두 복습하는 하루를 제외하곤 꼭 매일 푸셔야 합니다. 총 8주치가 제작됩니다.
- ④ 최근 10개년 내외의 평가원 지문만으로 구성했습니다. 마지막에 풀어볼 가치가 충분한 지문으로 선별하여 구성했으니, 파이널 기간 다른 기출문제집은 필요 없을 겁니다. 해당 자료를 처음부터 모두 공부하시면, 2017학년도부터 2021학년도까지의 지문은 모두 공부하게 됩니다. 문제 번호는 처음부터 1번, 2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시험지에서의 번호와 똑같이 제작했습니다. 지문 옆의 출처를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 ⑤ 단순히 풀고 해설지를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해설지에 녹아 있는 저의 '사고의 흐름'을 살피며, 어떤 식으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지 잡아 가셔야 합니다. '내용'이 아닌, 그 내용을 이끌어내는 '생각'에 주목합니다.
- ⑥ 해설지 상단에 각 day의 테마(?)를 적어 두었습니다. 교재와 수업에서 항상 강조하던 내용이니, 다시 상기하면서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나아가 해당 지문에 적용까지 하면서 공부해보면 금상첨화겠지요?
- ⑦ 해설지는 기본적으로 P.I.R.A.M 국어 교재에 있는 해설을 사용했지만, (교재에 없는 지문은 자체 제작 해설지) 부족함이 느껴지는 부분은 수정 및 추가를 했습니다. 교재에서 본 지문이라도 좀 더 자세히 읽어 보시면 더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 ⑧ 평가원 지문의 편집 양식을 최대한 지키면서, 또 문제를 풀 때 페이지를 넘기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서 편집했습니다. 깔끔한 편집과 저의 노력에 감탄하면서 풀어주세요 ㅎㅎ

# DAY 1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8.06

유학은 ①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이 지침이 앞으로는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향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지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이이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 16.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성학은 하늘의 도리와 합일된 사람이 되기 위한 학문이다.
- ② 『성학집요』에는 유학의 이념이 조선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수교'는 특정한 사안을 해결하는 과정을 거쳐 제정된다.
- ④ '대전'에 오르는 규정은 지속적으로 시행되면서 폐단이 없었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경국대전》은 확정된 이후에도 시대에 맞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본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 17. '율곡'의 관점에서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으로서 여기에도 '이'가 더불어 존재한다.
- ② '기'는 만물에 내재된 법칙이라는 점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와 대비된다.
- ③ 법제는 '이'에 속하지 않지만 '이'를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어져야 할 대상이다.
- ④ 탁한 기질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이'라 할 수 있는 선한 본성이 드러나게 할 수 있다.
- ⑤ 모든 사물들은 동일한 '이'를 갖지만 서로 다른 '기'로 말미암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18. ㉠에 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기'와 '치인'은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통해 '성인'이 됨을 목표로 한다.
- ② '이기지표'는 '수기'와 '치인'의 상호 대립적이고 분리 가능한 특징을 설명해 준다.
- ③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은 모두 천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이통기국'은 '수기'와 '치인'을 통해 '성인'이 지닌 기질적 병폐의 극복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 ⑤ '수기'와 '치인'을 위한 기질 변화 방법으로는 독서와 공부를 통해 시비를 분별하는 '역행'이 있다.

19. 윗글의 '율곡'과 <보기>의 '플라톤'의 견해를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플라톤은 물질적이고 가변적인 사물들이 존재하는 현실세계와 비물질적이고 불변적이고 완벽한 이데아들이 존재하는 이상 세계를 구분한다.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고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지만, 마음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상 세계에서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데아를 직접 접했던 인간은, 태어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을 상실한다. 물질의 한계로 인해 이데아의 완벽함이 현실 세계에서 똑같이 구현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 그것을 이 땅에서 구현해 내려 한다면 그만큼 좋은 국가를 만들게 될 것이다. 이 통치자가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철학자 왕'이다.

- ①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물질과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
- ②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③ 율곡의 '성인'은 플라톤의 '철학자 왕'과 달리 수양보다는 기억에 의존하여 통치한다.
- ④ 율곡의 '이'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마찬가지로 마음속에 존재하는 추상적 개념이다.
- ⑤ 율곡이 생각하는 이상 사회는 플라톤의 이상 세계와 마찬가지로 현실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다.

20. 윗글에 나타난 '율곡'의 법제 개혁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의 실천으로서 법제 개혁을 주장한다.
- ②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하는 국왕에게 선왕의 법을 개혁할 것을 건의한다.
-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을 악용하는 이들에 의해 법제 개혁이 가로막히는 경향을 비판한다.
- ④ 삼강과 같은 불변적 가치를 거론하는 까닭은 결국 법제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⑤ <경국대전>이 확정된 이후 연산군 때 제정된 악법들은 개혁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숙종'을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숙종 25년(1699) 회양부사 갑은 자신이 행차하는데 무례했다는 이유로 선비 을을 잡아 곤장을 쳐서 죽게 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숙종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보았으나, 대신들은 형벌을 집행하다가 일어난 일이니 사형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숙종은 꾸짖었다. “<경국대전>은 역대 선왕들께서 만들어 한결같이 시행해 온 성스러운 규범이다. 결코 멋대로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국왕에게 법을 잘못 적용하라고 하는가? 갑이 살아서 나가게 되면 무법의 나라가 된다.”

여기서 숙종과 대신들은 아래의 규정들 가운데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가) <경국대전> “<대명률>을 형법으로 적용한다.”  
 (나) <경국대전> “관리가 형벌 집행을 남용하여 죽음에 이르케 한 경우에는 곤장 100대에 처하고 영구히 관리로 임용하지 않는다.”  
 (다) <대명률>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 ① 숙종은 갑의 행위에 (다)를 적용하는 것이 조종성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군.
- ② 숙종은 완성된 지 20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경국대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 하는군.
- ③ 숙종이 <대명률>의 규정인 (다)를 적용하려는 것은 '대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태도라 해야겠군.
- ④ 숙종이 (나)의 적용을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나)가 양법미의 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군.
- ⑤ 숙종은 선왕의 법을 적용하는 대신들의 방식에는 불만이지만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보는 데는 동의하는군.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기둥의 최대 높이는 10 m 정도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나무 중에는 그 높이가 110m를 넘는 것들도 있다.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높이 110m의 나무 꼭대기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

대기 중의 수분 농도는 잎의 수분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잎의 표피에 있는 기공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이를 증산 작용이라고 한다.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기며, 이에 따라 물관부의 물기둥이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때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물의 강한 응집력 때문이다.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서 발생하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기둥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마치 끈처럼 연결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물관부에서 물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작용을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라 한다.

㉠이 메커니즘은 수분 퍼텐셜로 설명할 수 있다. 수분 퍼텐셜은 토양이나 식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의 양을 에너지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단위는 파스칼(Pa, 1 MPa=10<sup>6</sup> Pa)을 사용한다.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별도의 에너지 소모 없이 이동한다. 순수한 물의 수분 퍼텐셜은 0 MPa인데, 압력이 낮아지거나 용질\*이 첨가되어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진다. 토양의 수분 퍼텐셜은 -0.01 ~ -3 MPa, 대기의 수분 퍼텐셜은 -95 MPa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기공의 개폐는 잎 표면에 있는 한 쌍의 공변세포에 의해 이루어진다. 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와 기공이 열린다. 그러면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다. 문제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기공을 열면 물이 손실되고, 반대로 물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를 포기해야 하는 데 있다. 물과 포도당이 모두 필요한 식물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을 열고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아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물의 배출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기공의 개폐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게 된다.

\* 용질 : 용액에 녹아 있는 물질.

23.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기공의 개폐는 빛의 영향을 받는다.
- ② 광합성의 결과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
- ③ 기공이 열리면 식물 내부의 이산화탄소가 손실된다.
- ④ 증산 작용으로 물관부 내의 물기둥에 장력이 발생한다.
- ⑤ 물의 응집력으로 인해 물관부 내의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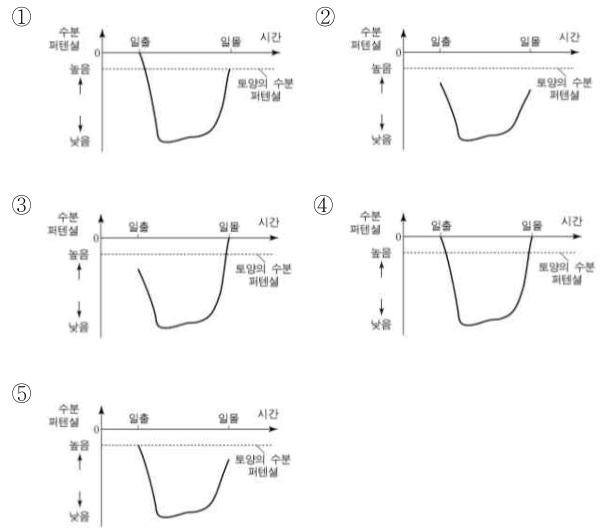
24. ㉠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 보 기 > —

- ㉠ 뿌리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 물이 토양에서 뿌리로 이동한다.
- ㉡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면 줄기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뿌리의 물이 줄기로 이동한다.
- ㉢ 증산 작용으로 잎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잎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져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한다.
- ㉣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잎의 수분 퍼텐셜이 대기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아진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25.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잎'의 수분 퍼텐셜을 나타낸 그래프로 위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은?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벽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나)

텔레비전을 끄자	}	[A]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	[B]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	[C]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	[D]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	[E]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뿔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	[E]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	[E]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	[E]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43. (가), (나)의 '어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어둠'은 '물상'을 돌려주는 행위의 주체로 표현되고 있다.
- ② (나)에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져 가는 시간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상황이 변화하고, (나)에서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방 안'의 분위기가 변화한다.
- ⑤ (가)에서는 '어둠'의 생산력을, (나)에서는 '어둠'의 포용력을 앞세워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44.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물들이 몸부림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사물들이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기존의 사물들이 새로 태어난 사물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④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하늘의 태양이 지상에 있는 사물들과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사물들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면서 혼란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5. (나)의 [A]~[E]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 '풀벌레 소리'를 지각하고 있어.
- ② [B]에서 화자는 '큰 울음'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화자의 인식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
- ③ [C]에서 화자는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들이 화자 자신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있어.
- ④ [D]에서 화자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그 울음소리들'을 떠올리며, 그 소리를 간파했던 삶을 성찰하고 있어.
- ⑤ [E]에서 화자는 '그 소리들'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면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어.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 어땀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 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름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땀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양(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희하여 외현으로 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댁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평이라고도 하는데, 귀 댁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지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히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커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금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베티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게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시 녀너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온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猪)도 갈분식(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중략)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비 쥐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땀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 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쌓아 두었는가?”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

하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늘 미친한 도적놈을 무엇이랴 찾았는가?”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려러 갔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대희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며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 만일 입신양명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둡게 하리도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推尋)\*하리라.”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도다.”

딱부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갈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 나오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명색이 무엇이냐?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라.”

하거늘 쥐란 놈이 골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다 꿰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 작자 미상, 「장끼전」 -

\* 현양 :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함.  
 \* 우마도 초분식하고, 산저도 갈분식이라 : 소와 말도 풀을 나눠 먹고, 산돼지도 칩을 나눠 먹는다.  
 \* 추심 :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에 대해 호감을 보이고 있다.
  - ③ 속담과 옛글을 삽입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인물의 초월적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⑤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33. '장끼'와 '딱부리'가 '서대주'를 각각 방문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서대주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었다.
- ② 서대주를 방문하기 전에, 장끼와 딱부리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 서대주를 대할 방식을 계획했다.
- ③ 서대주를 방문하여, 장끼는 시중 일관된 태도를 보였고 딱부리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었다.
- ④ 서대주의 거처를 확인하면서, 장끼는 서대주의 환심을 살 만하게, 딱부리는 서대주의 반감을 살 만하게 표현했다.
- ⑤ 서대주를 방문하는 목적을, 장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데에 두었고 딱부리는 도적질을 벌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데 두었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 내고 있다.

- ① 장끼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는 처자식을 위해 부유한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을 빌리는 장면에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는 몰락 양반의 면모를 알 수 있군.
- ② 서대주가 '시비 쥐'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어 손님을 '외현'에서 맞이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알 수 있군.
- ③ 서대주를 대접하여 양식을 빌린 장끼에게 딱부리가 '간사하도다'라고 언급하는 장면에서, 신흥 부호에 대한 처신을 놓고 몰락 양반 간에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서대주의 '시비 쥐'가 딱부리에게 꼴을 내는 장면에서, 몰락 양반의 경제적 곤궁함을 엿신여기는 신흥 부호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⑤ 서대주가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에게 명령하여 딱부리를 결박하는 장면에서, 향촌 사회에서의 신흥 부호의 위세를 알 수 있군.

For 2021 피램 국어 시리즈

피램' S

기출마무리 for 2021

(1주차) - 해설편



## DAY 1 독서 - 화제 붙잡기

- 첫 문단에서는 화제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 첫 문단을 읽고 나서, 반드시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간다.
- 모든 지문이 그런 것은 아니므로, 화제를 맞혀도 괜찮다. '생각'하는 것 자체에 의의가 있다.
- 화제를 잡았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 모든 정보는 화제를 위해 존재한다.

[16~21] ☆☆☆☆

유학은 수기치인(修己治人)을 통해 성인(聖人)이 되기 위한 학문으로 성학(聖學)이라고도 불린다. '수기'는 사물을 탐구하고 앎을 투철히 하고 뜻을 성실하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여 자신을 닦는 일이며, '치인'은 집안을 바르게 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인 천도(天道)와 합일되는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처음부터 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중요한 건 '유학, 수기, 치인, 성인, 율곡 이이, 성학집요'라는 많은 개념들의 '정의'를 체크하고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아 이 개념의 정의는 이거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가달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많은 정보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자연스럽게 체크가 되어야 합니다. 정보들의 '역할'을 기준으로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많은 정보들은 모두 '유학'에 대한 기초 지식(?)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율곡 이이'의 소망이었던 '유학의 이상 사회'라는 화제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까지 잡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읽어야 이 정보들에 대한 기억이 오래 남을 거예요. 만약 문제를 푸는 데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돌아오면 되죠 뭐. 이 정보들이 모두 '유학'의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화제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니, 모두 이 '카테고리' 속에 있을 것이고 빠르게 이 카테고리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은 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지문은 '유학'에 대한 지문이고, 그 중에서도 유학의 이상 사회 구현을 소망했던 '율곡 이이의 이론'에 대한 지문이라는 생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율곡 이이의 주장이 결국 지문의 화제가 되겠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위에 폭탄처럼 쏟아졌던 정보들이 모두 '율곡 이이'의 주장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까지 해주면 됩니다.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태도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 \*하이라이트 문장\*

이러한 유학의 이념을 적극 수용했던 율곡 이이는 수기치인의 도리를 밝힌 『성학집요』(1575)를 지어 이 땅에 유학의 이상 사회가 구현되기를 소망했다.

'유학'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소개한 이후, 이를 바탕으로 '율곡 이이'가 어떤 이상을 꿈꿨다는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율곡 이이'의 주장이 이 지문의 화제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최소한, 이 다음부터는 '율곡 이이'의 주장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율곡은 수기를 위한 수양론과 치인을 위한 경세론을 전개하는데, 그 바탕은 만물을 '이(理)'와 '기(氣)'로 설명하는 이기론이다. 존재론의 측면에서 율곡은 '이'를 형체도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존재하는 만물의 법칙이자 원리로 보고, '기'를 시간적인 선후와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작동하는 물질적 요소로 본다. <'이'와 '기'는 사물의 구성 요소로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지만, '이'는 현실 세계에서 항상 '기'와 더불어 실제로 존재한다.> 율곡은 이처럼 서로 구별되면서도 분리됨 없이 존재하는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지묘(理氣之妙)**라 표현한다.

율곡은 '수양론', '경세론'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개념들의 정의는 가볍게 체크해주시고, '이기론'의 정의도 체크하면 되겠네요. 거기에 '이, 기, 이기지묘'의 정의까지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의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엄청난 지문이에요. 외우는 건 불가능하니까 최소한 위치는 기억을 합시다. 어떻게? 이 정보들의 '역할'(율곡의 주장 설명)을 토대로 말이에요! 처음엔(2문단에선) '이'와 '기'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핵심은 율곡은 '이'와 '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를 통해서 유학의 이상 사회를 소망했을 거라는 거죠. 중요한 건 '율곡이 뭐라고 했는지'입니다. 이게 바로 화제니까요. 모든 정보는 여기로 모이게 될 겁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하면 '이'의 선한 본성이 회복되어 성인의 경

지에 이를 수 있다는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율곡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두어들이는 거경(居敬), 경전을 읽고 공부하여 시비를 분별하는 궁리(窮理), 그리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역행(力行)을 기질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으로 제시한다.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기론을 바탕으로 수양론을 설명하려 하네요. 우리는 이제부터 '율곡의 수양론'에 대해서 읽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뭘 읽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율곡은 '수양론'의 기반으로 '이통기국'을 주장했다고 해요. 이거 정의 체크해주고, 이통기국이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졌다는 거 생각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경, 궁리, 역행' 등을 통해 (이들의 정의는 체크는 해야겠지만 외울 수는 없겠죠? 모두 '기질 변화'를 위한 수양 방법이라는 역할을 한다는 것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수양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수양론'이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졌대요. 아! 지금까지 '이기론'을 바탕으로 '수양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부터는 '경세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거네요.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고 힘들다... 정의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을 테지만, 이 위치만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기억하는 방법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보의 역할을 토대로 '지문의 흐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평가원은 절대로 정보를 막 던지지 않거든요. 지금 율곡의 이기론을 설명하고, 이기론을 통한 수양론, 경세론의 실현 방법을 순서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 정보들의 역할을 토대로 지문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면 선지에서 물어보는 개념의 위치가 어딘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이통기국(理通氣局)을 주장한다.

우리가 읽고 있는 정보는 '수양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에 나오는 모든 정보를 '수양론'이라는 카테고리에 넣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문장\***

인간에게 내재된 천도를 실현하려는 율곡의 수양론은 사회의 폐단을 제거하여 천도를 실현하려는 경세론으로 이어진다.

'수양론'이라는 카테고리에서 '경세론'이라는 카테고리로 옮겨갈 것임을 이야기해주는 친절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반드시 했어야 해요! 그래야 다음부터 나오는 정보들이 외계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사상가인 동시에 탁월한 경세가였던 율곡은 많은 논설에서 법제 개혁론을 펼쳤는데, 이는 「만언봉사」(1574)에서 잘 나타난다. 선조는 “이’는 빈틈없는 완전함이 있고, ‘기’는 변화하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근래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 재앙으로부터 깨우쳐야 할 도리를 신하들에게 물었고, 율곡이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것이 「만언봉사」이다. 여기서 율곡은 “때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은 법제이며, 시대를 막론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 왕도요, 어진 정치요, 삼강이요, 오륜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곧, ‘이’라 할 수 있는 왕도나 오륜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법제 개혁론'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율곡은 '만언봉사'라는 책에서 법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자 생각해보시다. 우리는 지금 뭘 읽고 있죠? 그렇죠 법제 개혁. 그럼 이 법제 개혁이라는 정보는 왜 나온 건가요? 즉 역할이 뭔가요? 네 그렇죠. 율곡의 '경세론'이죠? 이 생각을 하면서 흐름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정보 하나하나 체크하기만 하면, 끝나고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거예요. 화제인 '율곡의 주장'을 쭉 체크하면서 법제 개혁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게 '경세론'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며 읽어 봅시다.

'선조'의 주장, '만언봉사'의 정의 등은 어느 정도 빠르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보들은 모두 '법제 개혁론'이라는, '율곡'의 '수양론' 관련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는 정보인 걸 인식했는데, 그 자체가 화제와 직결되는 정보들인 것은 아니니까요. 이렇게 '화제'를 중심으로 글을 읽으면 정보의 중요도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경지까지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조선에서 법전의 기본적인 원천은 '수교(受敎)'이다. ① 어떤 사건이 매우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왕은 조정의 회의를 열고 처리 지침을 만들어 사건을 해결한다. ②이 지침이 앞으로든 같은 종류의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합하겠다고 판단되면, 국왕의 하명 형식을 갖는 법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를 수교라 한다. ③그리고 이후의 시행 과정에서 폐단이 없고 유용하다고 확인된 수교들은 다시 다듬

어지고 정리되어 ‘**록(錄)**’이라는 이름이 붙은 법전에 실린다. ④여기에 수록된 규정들 가운데에 지속적인 적용을 거치면서 영구히 시행할 만한 것이라 판정된 것은 마침내 ‘**대전(大典)**’이라는 법전에 오르게 된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율곡의 ‘**법제 개혁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조선 법의 체계를 설명해주고 있네요. 사안에 대한 지침에서 시작하는 ‘**수교**’, 그 중에서 괜찮은 것을 뽑은 ‘**록**’, 그 중에서도 진짜 괜찮은 것들은 ‘**대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 개념들의 정의를 바탕으로, ‘수교 → 록 → 대전’ 순서로 더 대단한 법이라는 걸 체크하면서 가봅시다! 그래서 율곡은 이 법들에 대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궁금해하는 정보인 ‘**율곡의 주장**’에 모든 정보를 모으면서 읽어주셔야 해요!

성종 때에 확정된 **《경국대전》(1485)**은 이 과정을 거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통일 법전이다. 꾸준한 정련을 거쳐 ‘대전’에 오른 이 규정들은 ‘**양법미의(良法美意)**’라 하였다. 백성들에게 향구히 시행할 만한 아름다운 규범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이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끝날 때까지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수행해 왔고, 그 안에 실린 규정들은 개정되지 않았다. 선왕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오랜 시행으로 검증하여 영원토록 시행할 것으로 판정된 규범은 ‘**조종성헌(祖宗成憲)**’이라 불렀고, 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왕도에 근접하였다고 여긴 것이다. ‘대전’에 실린 규정은 **조종성헌**으로 받아들여졌고, 따라서 **국왕**이라 해도 그것을 어길 수 없었다.

그런데 아직도 율곡 이야기를 안 하네요. 일단 릴렉스하고 다시 체크해봅시다. ‘경국대전’은 이런 엄청난 대전들을 모은 법전인데, 애를 ‘양법미의’라고 불렀대요. 이제부터 ‘경국대전’과 ‘양법미의’는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해요. 이 ‘경국대전’, 즉 ‘양법미의’는 국가 기본 법전의 역할을 했고, 개정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400년간 개정되지 않은 거니까 엄청 잘 만들기는 했네요. 그리고 이런 대전에 실린 법들은 또 ‘조종성헌’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수교 → 록 → 대전=양법미의=조종성헌’이네요. 이 법 체계는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율곡은 뭐라고 했을까요!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는 성종을 이은 연산군 때 제정된 조세 법령이 여전히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실

정을 지적하는 등 폐단이 있는 여러 법령들을 거론한다. 이런 법령들은 고수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야만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 오히려 조종성헌이 회복된다는 것이다. 결국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을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며 고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권세가들에 대하여, 그런 법령은 변하지 않아야 할 ‘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론적인 공박을 펼친 것이다. 자신의 이기론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이루려 했던 율곡 이의의 노력은 수기치인의 실천이라 할 만하다.

율곡은 이런 조종성헌 자체를 변혁하자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종성헌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법령은 오래된 선왕의 법이라고 해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대요. 원래 대전에 실리는 법들은 바꾸면 안 되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몇몇 법들은 ‘이’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으니 ‘이’의 실현을 위해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네요. 좀 허무하긴 한데 결국 이 지문이 말하고 싶었던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 혹은 ‘이’라고 부를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법들은 아무리 선왕의 법이라고 해도 바꾸자!”라는 거네요. 그래야 율곡이 말하는 수기치인을 통한 이상적인 유학 사회가 구현될 수 있으니까요.

개념이 정말 많이 나와서 힘들었지만 ‘정보의 역할’을 토대로 지문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지문이었네요. 중요한 건 이 ‘흐름’을 파악해서 최소한 ‘정보들의 위치’는 머릿속에 담아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율곡의 법제 개혁론은 조종성헌을 변혁하자는 것이 아니다.

앞 문단들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율곡’에 대한 정보임을 생각해내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이 문장을 보고서는 다시 흐름을 잡을 수 있었어야 합니다. ‘율곡의 주장’이라는 이 지문의 화제를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다는 것이죠! 독서 지문 독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니 잘 정리합시다.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16.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3%	6%	7%	81%

① 수기치인을 통해 하늘의 도리에 도달한 사람이 ‘성인’이라고 했으니 성학, 즉 ‘유학’의 목표는 ‘하늘의 도리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문단에 나온 개념들의 정의를 잘 섞어놓은 선지입니다. 중요한 건 만약 판단이 잘 안 된다고 해도 여기 나오는 말들이 1문단의 카테고리 속에 있었다는 생각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② 그렇다고 했죠. ‘성학집요’의 정의를 묻는 선지입니다.

③ ‘수교’의 정의를 찾아보면 쉽게 지울 수 있네요. ‘수교’의 정의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아도 ‘율곡의 수양론’ 카테고리 속 ‘조선의 법 체계’라는 흐름에서 나왔다는 건 기억을 해야 합니다!

④ 역시 ‘대전’의 정의를 묻는 선지입니다.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⑤ ‘경국대전’은 ‘양법미의’, ‘조종성헌’ 등과 같은 말이었고, 이렇게 빼어난 법전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경국대전’이라는 정보가 어떤 개념이었는지 생각했다면 너무나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7.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0%	66%	15%	5%	4%

① 일단 ‘이’와 ‘기’의 정의를 찾으려 ‘이기론’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었던 2문단으로 가야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바로 2문단으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의 정의는 시간적인 선후 및 공간적인 시작과 끝을 가지는 ‘물질적 요소’이므로, 천재지변은 ‘기’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천재지변’에는 시간적인 선후도, 공간적인 시작/끝도 있으니깐요! 그리고 이 ‘기’에도 ‘이’가 존재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관련된 개념을 찾아보니 ‘이기지묘’가 보이죠? ‘이’와 ‘기’는 분리됨이 없이 존재하는 개념들입니다!

② ‘만물에 내재된 법칙’은 ‘이’의 정의죠. ‘이’와 ‘기’의 정의를 체크했다면, 적어도 2문단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확인했다면 쉽게 고를 수 있는 선지네요. 물론 ‘이’와 ‘기’ 같은 핵심 정보는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중요한 건, ‘정보의 역할’을 토대로 흐름을 잡는 것입니다!

③ 율곡의 ‘법제 개혁론’ 부분으로 돌아가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법 자체는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속하는 건 아니지만, 법제를 개혁하면 왕도나 오륜과 같은 ‘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율곡의 주장을 묻는 선지예요.

④ ‘기질 변화론’의 정의네요. ‘기질 변화’에 대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⑤ ‘이통기국’의 정의네요. 4번, 5번 선지같은 내용은 ‘어디서 봤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와 ‘기’에 대해 설명하는(정보의 역할) 2, 3문단으로 빠르게 돌아가서 찾는 게 현실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핵심은 ‘빠르게’예요.

18.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8%	5%	61%	12%	4%

① ‘수기’와 ‘치인’의 목표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개념들의 정의부터 잡아야겠네요. 이들은 모두 ‘유학 관련 기초 지식’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정보들이었는데, 여기로 돌아가서 이 개념들의 정의를 보면 ‘이’와 ‘기’에 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아요. 지문에 없다고 바로 틀렸다고 하는 건 조금 두렵죠? 이럴 땐 선지에서 묻고 있는 ‘다른 개념’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와 ‘기’의 ‘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까요? ‘기’의 정화는 ‘기질변화론’에서 강조하는 것인데, ‘이’는 정화의 대상이 아니었죠? 결국 ‘수기’와 ‘치인’이 각각 ‘이’와 ‘기’의 정화를 목적으로 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의 정화가 불가능하기에 절대 맞을 수가 없는 선지네요.

혹은 이렇게 지워낼 수도 있습니다. ‘수기’는 ‘수양론’, ‘치인’은 ‘경세론’과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율곡’이 주장하는 ‘수양론’과 ‘경세론’은 모두 ‘이기론’을 바탕으로 전개됩니다. ‘이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이’와 ‘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예요.(이기지묘) ‘수기’는 ‘이’를, ‘치인’은 ‘기’를 따로 정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조금 복잡할 수 있었지만, 어쨌든 핵심은 ‘선지에서 묻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 판단의 대원칙으로 삼아두어야겠죠?

② ‘이기지묘’의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이기지묘’는 ‘이와 기가 분리됨이 없이 존재함’이라는 의미입니다.

③ ‘수양론’, ‘경세론’의 정의를 먼저 보니, 각각 ‘수기’, ‘치인’을 위

한 것이 맞죠? 수기치인을 통해 성인, 즉 천도와 합일되는 성인이 되는 것이 유학의 목표라고 했으니 맞는 선지네요. 사실상 ‘율곡’의 ‘수양론’과 ‘경세론’이라는 화제를 묻는 선지였어요. ‘수기=수양론’, ‘치인=경세론’과 같이 ‘같은 말’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④ ‘성인’은 기질적 병폐를 극복하고 천도와 합일된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선지에서 묻는 ‘성인’의 정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했네요.

⑤ ‘역행’의 정의는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욕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5번 선지는 ‘궁리’의 정의네요. 개념의 정의를 정말 집요하게 묻고 있습니다. ‘거경’, ‘역행’, ‘궁리’가 어떤 카테고리 속에 있는지는 기억이 나죠?

### 19.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0%	7%	7%	15%	11%

- <보기>부터 정리해봅시다. ‘율곡’과 ‘플라톤’을 비교하라는 문제네요. 미친듯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볼 거예요. 일단 ‘플라톤’의 주장을 체크해 봅시다. ‘이데아’라는 이상 세계가 있고, 이 이데아를 가장 잘 기억하는 ‘철학자 왕’이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네요. 이러한 ‘플라톤’과 ‘율곡’은 모두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주장을 펼쳤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이 공통점 정확하게 잡아두고, 둘의 차이점은 선지 판단하면서 생각해봅시다.

① ‘플라톤’의 ‘이데아’는 물질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반면 율곡의 ‘이’는 ‘물질적 요소’라는 정의를 가진 ‘기’와 분리됨이 없이 존재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이기지묘’구요. 바로 정답이네요. 공통점/차이점은 주장으로부터 온다! 할 수 있죠?

② 율곡의 ‘이’와 플라톤의 ‘이데아’의 정의를 보니, 공통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네요. 공통점/차이점은? 정의에서 나온다! 잊지 맙시다.

③ ‘성인’은 수양, ‘철학자 왕’은 기억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개념의 정의를 집요하게 묻습니다. 개념의 정의가 나오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④ ‘이’는 형체가 없으니 추상적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기도 하니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 애매하네

요. 그런데 <보기>에서 ‘이데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네요. 그럼 무조건 틀린 선지죠? 또 정의를 묻고 있어요.

⑤ 율곡은 이게 가능하다고 믿었으니 법제 개혁론 같은 걸 펼쳤겠죠. 역시 율곡의 생각이 애매하다고 하더라도, 플라톤의 이상 세계는 현실에서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20.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49%	16%	20%	9%

① 이게 사실상 이 지문의 화제죠.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경세론’. 그리고 그 ‘경세론’ 실현을 위한 ‘법제 개혁론’, ‘정보의 역할’을 바탕으로 흐름을 정확하게 잡고 읽었다면 너무나 쉬운 선지였을 겁니다.

② 이 지문의 화제가 뭐라구요? 한 마디로 ‘율곡의 주장’입니다. 율곡이 법제 개혁을 주장했던 건 권세자들이 잘못된 법을 선왕의 법이라고 하며 무작정 지키려고만 하는 상황 때문이었지, 국왕이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주장을 정확하게 체크했다면 바로 고를 수 있는 선지입니다. 이 지문에 제시된 유일한 국왕인 선조가 ‘이’와 ‘기’에 대해 잘못된 견해를 제시했다고 한 적도 없구요. 화제인 ‘율곡의 주장’이 어떤 맥락 속에서 제시되고 있는지를 생각했다면 쉽게 지을 수 있겠습니다.

③ 조종성헌 존중의 전통, 즉 오래된 선왕의 법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권세자들에게 잘못된 법령은 개혁하자고 소리치고 있죠. ‘경세론=법제 개혁론’이라는 흐름을 정확하게 잡았어야 해요!

④ 마지막 문단에서 율곡은 삼강, 오륜, 왕도와 같은 것은 변할 수 없다고 했고, 이를 위해 법제를 개혁할 것을 주장했죠. 이 선지들이 율곡의 주장을 묻고 있다는 걸 안 순간 마지막 문단과 비교하며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몇 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율곡은 이런 악법들은 ‘이’의 영역이 아니니까 바꿔야한다고 했어요!

21.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2%	4%	11%	14%	9%

- 일단 <보기>부터 이해해 봅시다. 상황을 보아하니, (가)와 (나)라는 경국대전의 두 조항이 충돌하는 상황이네요. 여기서 숙종은 (가)와 (다)를, 대신들은 (나)를 적용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숙종'과 '대신들'의 주장이 어떤 조항을 끌어오는 건지를 생각하는 식으로 <보기>를 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어요. 그럼 선지 판단해 봅시다.

① 숙종은 경국대전이 역대 왕들이 시행해온 '조종성헌'이라고 했고, 이를 잘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와 (다)를 통해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바로 정답이네요. 숙종이 (가)와 (다)를, 대신들이 (나)를 적용하자고 하고 있다는 걸 미리 정리했어야 해요! <보기> 정리 잘 하고 계시죠?

② 뭘 헛소리죠..? 숙종은 주구장창 (가)와 (다)의 내용처럼 경국대전을 적용하자고 하고 있어요.

③ 대명률인 (다)를 형법으로 적용하라는 것이 위대한 '경국대전'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전의 규정을 아주 잘 따르는 것이죠.

④ 숙종은 (나)가 '양법미의'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대전에 실린 법들은 결국 '양법미의'와 '조종성헌'이 맞아요. 숙종이 주장한 건 이런 '양법미의'들 중에서 적절한 것들을 적절한 상황에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들이 '양법미의'가 아니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숙종'의 주장을 정확히 잡을 것을 요구한 선지네요.

⑤ 숙종은 갑의 행위가 정당한 형벌 집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 (나)가 아닌 (다)를 적용하자고 한 것이겠죠. 정당한 형벌 집행이라고 생각했다면, 단순한 '살인'이 아닌 '형벌 집행'에 대한 법률인 (나)를 적용했어야겠죠.

③ 선지에서 묻는 것 : 모든 선지 판단의 시작은 '묻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④ <보기> 정리 : <보기> 문제를 해결할 때, 선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point\***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23~25] ☆☆☆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물기둥의 최대 높이는 10m 정도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나무 중에는 그 높이가 110m를 넘는 것들도 있다.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높이 110m의 나무 꼭대기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

‘물기둥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물기둥은 10m 정도가 최대 높이인데, 실제로는 110m가 넘는 나무도 있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겠죠? 화제는 매우 간단해요. 물이 110m 높이까지 전달되는 방법! 그 원리를 알아보려 갑시다.

**\*하이라이트 문장\***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된 물이 높이 110m의 나무 꼭대기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것일까?

지문에서 물어보는 이유는 정말로 그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이제부터 이야기할 정보들의 ‘카테고리’임을 알려 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인식하고 가도록 합시다.

대기 중의 수분 농도는 잎의 수분 농도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잎의 표피에 있는 기공을 통하여 대기 중으로 확산되는데, 이를 **증산 작용**이라고 한다. ①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 물의 통로가 되는 조직인 **물관부** 내부에 물을 끌어올리는 **장력**이 생기며, ②이에 따라 물관부의 물기둥이 위로 끌려 올라가게 된다. 이때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고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물의 강한 응집력** 때문이다.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에서 발생하는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물기둥이 뿌리에서부터 잎까지 끊어지지 않고 마치 끈처럼 연결되어 올라가는 것이다. 물관부에서 물 수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러한 작용을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라 한다.

바로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산 작용’이라는 개념의 정의부터 잡아봅시다. 쉽게 말해서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물이 확산되는 과정이네요. 이렇게 기공을 통해 물이 빠져나가면, 물관부 내부에 ‘장력’이라는 힘이 생기고 이에 따라 물이 끌려 올라가는 과정이네요. 순서의 느낌이 있으니 번호로 끊어주시면 더 좋겠죠? 여기서 물기둥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힘이 바로 ‘응집력’이라고 해요. 이 내용을 다 합쳐서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네요.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해도, ‘증산 작용’을 바탕으로

로 만들어진 ‘장력’과 ‘응집력’이 첫 문단의 물음, ‘물이 나무 꼭대기까지 전달되는 방법’에 대한 답이라는 걸 생각해주시면 되겠죠? 단순히 정보의 이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의 역할까지 생각하며 화제의 흐름을 만들어 주셔야 해요!

아! 물론, 중간중간 나오는 ‘대기 중 수분 농도’와 ‘잎의 수분 농도’, 그리고 ‘물의 응집력’과 ‘장력’ 중 무엇이 더 크지와 같은 미시적인 ‘비교 포인트’들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히 무엇이 더 큰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들이 비교되고 있다는 생각 정도는 해주셔야 해요.

**\*생각 심화\***

물론, 여러분이 정말 최상위권이 되고 싶다면 이런 내용을 ‘납득’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분 농도’에 대한 부분을 보니, ‘수분 농도’가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고 있네요. 그럼 ‘수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하는구나’와 같은 생각을 바탕으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 배경지식처럼 미리 알고 있다면 금상첨화겠지만요. 나아가 물의 ‘응집력’이 물관부 내부에 생성된 ‘장력’보다 크기 때문에, 단순히 끌려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끈처럼 ‘연결’되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겠네요. 이 정도로 어설피게라도 ‘납득’할 수 있으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고, ‘이해’하는 순간 ‘기억’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많아집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사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고 싶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도록 해요.

**이 메커니즘은 수분 퍼텐셜로 설명할 수 있다. 수분 퍼텐셜**은 토양이나 식물체가 포함하고 있는 **물의 양을 에너지 개념으로 바꾼 것으로,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단위로는 파스칼(Pa, 1MPa=10<sup>6</sup> Pa)을 사용한다.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별도의 에너지 소모 없이 이동한다. **순수한 물의 수분 퍼텐셜은 0 MPa인데, <압력이 낮아지거나 용질이 첨가되어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진다.>** 토양의 수분 퍼텐셜은 -0.01 ~ -3 MPa, 대기의 수분 퍼텐셜은 -95 MPa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 압력↓, 이온 농도↑ → 수분 퍼텐셜 ↓

이 메커니즘은 '수분 퍼텐셜'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분 퍼텐셜'의 정의는 '물의 양'이자 '물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이런 정의 확실하게 잡아두셔야겠죠?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고, 압력 및 이온 농도와 저런 비례/증감 관계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토양→뿌리→줄기→잎'의 순서로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결국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고 해요.

정신없이 정보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다음 문단의 내용을 온전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뭘 읽고 있지?', '애는 왜 나왔지?' 우리는 지금 '수분 퍼텐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크하고 있고, 이 정보는 결국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라는 화제를 설명하기 위해 존재할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고 나니, 마지막 문장에 나온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는 말을 보고 반가운 느낌이 듭니다. '증산 작용'의 정의와 똑같은 말이니깐요! 결국 '수분 퍼텐셜'이라는 게 낮은 쪽으로 이동하면서 '증산 작용'이 일어난다는 원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었네요. 이렇게 지문의 정보를 '화제'를 중심으로 이쁘게 모아주셔야 해요! 지문을 다 읽고 나면 이 지문의 화제가 임팩트 있는 명사였던 '수분 퍼텐셜'이 아닌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말이지요.

**\*생각 심화\***

위에서 제시한 정도로만 읽어주셔도 충분히 훌륭한 독해를 한 것이지만, 역시 조금 더 깊게 읽어봅시다. 먼저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가 앞에서 '납득'했던, '수분 농도' 관련 정보와 같은 말이지요? '수분 농도'가 높은 '잎' 쪽에서 낮은 '대기'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고 했는데, '수분 농도'와 사실상 같은 말인 '물의 양'을 나타내는 '수분 퍼텐셜' 역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흐른다고 했으니깐요. 이렇게 '납득'하면서 읽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한 번 되는 순간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급상승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시험장에서 반드시 해낼 필요는 없지만, 공부할 때는 스스로 연습해보도록 합시다.

나아가 '압력↓, 이온 농도 ↑ → 수분 퍼텐셜 ↓'이라는 비례/증감 관계도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의 압력이 낮아지거나, 물이 아닌 다른 물질의 농도가 높아진다면, '물의 양'에 해당하는 '수분 퍼텐셜'은 당연히 낮아지겠죠? '수분 퍼텐셜'의 정의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정보들이었네요.

**\*하이라이트 문장\***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물은 뿌리에서 줄기를 거쳐 잎에 도달한 후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확산된다.

'기공'을 통해 '대기 중'으로 물이 확산된다는 정보를 보고서 '증산 작용'이라는 이 지문의 화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화제'를 잡고, 그 화제를 놓지 않는 것! 잘 해낼 수 있겠죠?

**기공의 개폐**는 잎 표면에 있는 한 쌍의 공변세포에 의해 이루어진다. ①빛의 작용으로 공변세포 내부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②그에 따라 물이 공변세포로 들어와 기공이 열린다. ③그러면 식물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다. **문제**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기공을 열면 물이 손실되고, 반대로 물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를 포기해야 하는 데 있다. 물과 포도당이 모두 필요한 식물은,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이 있는 낮에는 기공을 열고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아서 이산화탄소의 흡수와 물의 배출을 조절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그 결과 **기공의 개폐**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게 된다.

이번엔 '기공의 개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결국 이 지문의 화제는 '증산 작용'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체크했으니, 이 문단도 결국 이 화제에 대해 한 번 더 설명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또 순서의 느낌이 있으니 ①~③으로 '기공 열기 혹은 광합성 및 포도당 생산'의 과정을 끊어주셔야겠네요. 어떤 과정을 체크한 뒤에는 반드시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해결형 구조가 미시적으로 끼어들고 있네요. 기공을 열면 물이,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가 소실되는 것이 그 문제입니다. 식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낮에는 기공을 열고 밤에는 기공을 닫는 시스템을 만들어냈고, 결국 '기공의 개폐'는 일정한 주기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기공이 열려야 물이 빠져나가고 지문의 화제인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 작동할 텐데, 밤에는 이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나 보네요. 제가 한 것처럼 '기공의 개폐'라는 것(정확히는 기공이 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였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생각 심화'에 신지 않았다는 건,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만 하는 생각이라는 뜻이겠죠? 지금 당장은 이렇게 못했더라도 수능날에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복습하고 정리합니다.

**\*하이라이트 문장\***

문제는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기공을 열면 물이 손실되고, 반대로 물 손실을 막기 위해 기공을 닫으면 이산화탄소를 포기해야 하는 데 있다.

‘기공’을 열면 왜 물이 손실되는지, ‘기공’을 닫으면 왜 이산화탄소를 포기해야 하는지 등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랐던 어휘 정리하기

**23.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2%	92%	2%	1%

① ‘기공의 개폐’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의 과정을 살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끊어둔 ①번 과정을 보니, ‘빛의 작용’이 시작점이 되어 기공을 열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② ‘광합성’, ‘포도당’ 역시 마지막 문단의 과정에서 나온 정보입니다. 제가 끊어둔 과정을 따라가보니, ③번 과정에서 광합성을 통해 포도당을 생산할 수 있다고 했네요.

③ ‘이산화탄소/물의 손실’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니, 기공을 열면 ‘물’이 손실된다고 했네요. 실제로 기공을 열면 ‘증산 작용’으로 인해서 물이 빠져나가기도 하죠? 이산화탄소의 손실은 기공을 닫을 때 일어나는 문제였죠!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네요. 이 정도는 충분히 납득하고 있어야 하는 정보였어요.

④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라는 지문의 핵심 정보를 체크하고 있었다면 바로 지을 수 있죠?

⑤ 4번 선지와 같은 방식으로 지을 수 있네요.

**24.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	8%	3%	74%	7%

-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을 ‘수분 퍼텐셜’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화제 그 자체를 묻는 문제죠? 한 번 판단해 봅시다.

㉠ 수분 퍼텐셜은 ‘토양→뿌리→줄기→잎’의 순서로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뿌리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보다 낮은 것 맞고,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물이 이동한다고 했으니 토양에서 뿌리로 이동하는 것도 맞네요.

㉢ 줄기의 물이 잎으로 이동하면, 줄기의 수분 퍼텐셜은 낮아질 겁니다. ‘수분 퍼텐셜’은 ‘물의 양과 같은 말이니깐요! 그럼 뿌리의 물이 수분 퍼텐셜이 낮아진 줄기 쪽으로 이동하겠네요. ‘수분 퍼텐셜’의 정의를 잡고 있는지, 또한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 ‘토양→뿌리→줄기→잎’의 순서로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선지였어요.

㉤ ⑥와 비슷한 상황이죠? 잎에 있던 물이 공기 중으로 빠져 나가면, 잎의 수분 퍼텐셜이 낮아지고 그 낮아진 잎 쪽으로 줄기의 물이 이동할 것입니다.

㉥ ‘광합성이 일어나는 동안’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광합성이 일어난다는 건 기공이 열려 있다는 것이고, (화제의 흐름을 통해서도, 23번 문제의 1~2번 선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기공이 열려 있으면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잎에 있는 물이 대기 중으로 퍼질 것이고, 잎의 수분 퍼텐셜은 대기의 수분 퍼텐셜보다는 크겠네요.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니까요.

단순히 눈알을 굴려서 답을 고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과 ‘수분 퍼텐셜’, ‘기공의 개폐’라는 정보를 하나로 모아서 문제풀이에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국 최근의 킬러 지문은 이 태도가 핵심이 되니까요.

25. ②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13%	38%	25%	13%	11%

- 발문이 특이합니다. 이런 경우 무엇을 묻는지부터 확실하게 체크해야 해요! ‘일출부터 일몰까지’ ‘잎의 수분 퍼텐셜’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해결형 구조의 기본 독해 태도를 갖추고 있었다면, ‘일출/일몰’이 결국 ‘기공의 개폐’에 영향을 준다는 걸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해가 떠 있으면 기공을 열고, 해가 지면 기공을 닫는 게 식물이 지닌 문제의 ‘해결책’이었으니까요! 여기에 나아가서, 기공을 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죠! ‘증산-장력-응집력 메커니즘’이 일어나서 물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관점에서 선지를 쭉 살펴보면, 모두 답이 되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일출 이후 기공을 열어 잎에서 물이 계속 빠지면 잎의 수분 퍼텐셜은 낮아질 것이고, 일몰 즈음 기공을 닫기 시작하면 잎에서 대기로 물이 이동하지 않아 잎의 수분 퍼텐셜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테니까요. 저와 똑같이 생각하고 있죠? 그럼 나머지 조건을 확인하러 가봅시다.

문제에서는 또한 ‘잎’의 수분 퍼텐셜을 묻고 있었는데, 선지에 있는 그래프에는 ‘토양’의 수분 퍼텐셜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문을 읽으면서도, 24번 문제를 풀면서도 ‘수분 퍼텐셜’이 ‘토양→뿌리→줄기→잎’ 순서로 낮아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일단 ‘잎’의 수분 퍼텐셜은 죽었다 깨어나도 ‘토양’보다 높을 수는 없겠네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잎에서 토양으로 다시 물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날 테니까요. (물은 수분 퍼텐셜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

이 관점에서 그래프를 살펴보니, 2번 말고는 답이 없네요. 나머지는 모두 잎의 수분 퍼텐셜이 토양의 수분 퍼텐셜과 같거나 오히려 더 높아지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니까요. 허무하게 답이 나오죠? 결국 문제에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만 제대로 체크하면 되는 문제였네요.

**\*핵심 point\***

- ① 화제 check : 비문학 독해의 처음이자 끝. 첫 문단에서 잡은 ‘화제’를 마지막 문단까지 놓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첫 문단의 물음은 화제를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② 정보의 역할 : 모든 정보는 ‘화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바탕으로, 정보를 특정한 기준으로 카테고리화하며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③ 과정과 비례/증감 관계 : 이해하지 못한다면, 핵심은 ‘시각화’입니다. 번호를 매기거나 메모하는 등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납득’하는 것입니다. 지문의 내용에 근거하여 왜 그런 과정이나 비례/증감 관계가 나타나는지 ‘납득’하도록 합니다.
- ④ 선지에서 묻는 것 : 모든 선지 판단의 시작은 ‘묻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 DAY 1 문학

- 허용 가능성 평가 : 허용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허용해야 한다.
- 현대시 : 실전에선 '전체적인 상황과 반응'만 잡고, 선지에서 묻는 부분의 근처 맥락을 바탕으로 '독해'한다. 공부할 때는 전체적인 지문의 독해도 연습하는 것이 좋다. 중요한 것은 '독해', 즉 글자 그대로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다. '해석'하는 게 아니다!
- 고전소설 : 소설의 핵심은 '누가, 어떤 행동/심리를, 왜'를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다. 고전소설에선 특히 '누가'에 주목한다. 새로운 호칭이 나오면, 정말로 새로운 인물인지 꼭 생각해보고 간다.

[43~45] ☆☆

<보기>가 있으면 먼저 읽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냥 아예 없네요. 바로 지문 읽어봅시다.

(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혁을 한다.

-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

### \*실전 독해\*

'어둠'이 굴복한 뒤에 나타나는 '아침'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신한 표현이 많이 나온다는 것 외에는 딱히 체크할 내용이 없네요.

### \*사후적 독해\*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이면,

어둠은 온갖 물상(物象)을 돌려주지만 스스로는 땅 위에 굴복한다.

'어둠'은 '새', '돌', '꽃'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침'이 되면 '어둠'은 온갖 물상들을 돌려주고 땅 위에 굴복한다고 합니다. '아침'이 되면 당연히 '어둠'은 사라지고, 이 '어둠'이 낳았던 '새', '돌', '꽃'과 같은 '온갖 물상'들은 세상으로 나온다는 뜻이겠네요. 이런 말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 필요는 없겠지만, '어둠'이 가고 '아침'이 오면 '온갖 물상'들이 세상으로 나온다는 흐름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거운 어깨를 털고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어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金)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아침이면,

세상은 개혁을 한다.

이렇게 '아침'이 되자, '물상'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표현이 제시되었지만 전혀 힘들어 보이지는 않아요. '지상의 잔치', '태양의 울림'과 같은 표현 모두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아침'이면 세상은 개혁을 한다며, '아침'에 나타나는 생명력을 표현하고 있네요.

(나)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다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

**\*실전 독해\***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는 모습이네요. 화자는 이 자연의 소리를 정말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네요.

**\*사후적 독해\***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텔레비전’을 끄고 나니 ‘어둠’ 속의 ‘풀벌레 소리’들이 가득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본 모습일 수도 있고, 최소한 충분히 상상해 낼 수 있는 모습이죠? 이해하는 게 어렵지는 않네요.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화자는 ‘귀뚜라미’, ‘여치’ 같은 큰 울음(저 단어들만 봐도 시끄럽다 그죠?) 말고, ‘풀벌레’들의 아주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 작은 소리들은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지나가고,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두꺼운 화자의 귀에 부딪쳐 되돌아가는 등, 화자가 인식하기 쉽지 않은 소리였는데, ‘텔레비전’을 끄니 이런 소리들을 비로소 생각할 수 있게 된 모습이네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다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그동안 ‘브라운관’, 즉 ‘텔레비전’을 켜 놓아서 이러한 ‘작은 소리’를 놓쳤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앞 부분에서부터 이야기했던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텔레비전’을 끈 지금, 밤공기를 크게 들이쉬니 화자의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밤’에 ‘텔레비전’을 끄고서야 비로소 들을 수 있었던, ‘자연’의 다양한 ‘작은 소리’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겠죠?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43.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4%	2%	7%	9%	78%

① ‘어둠’은 온갖 ‘물상’을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선지 그대로 허용이 되네요.

② ‘풀벌레 소리’는 ‘어둠’과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충분히 도드라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③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지고 ‘아침’이 오는 모습을, (나)에서는 ‘어둠’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풀벌레 소리’를 듣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허용할 수 있죠.

④ (가)에서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아침’이 오는 상황의 변화를 묘사하고 있고, (나)에서는 ‘텔레비전’을 끈 후 ‘어둠’과 함께 들어오는 ‘풀벌레 소리’ 덕에 ‘방 안’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죠? 시의 내용은

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읽고 생각 하는 거예요!

⑤ (가)에서는 ‘어둠’이 무엇인가를 낳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니 ‘생산력’을 허용할 수 있고, ‘아침’에게 물상을 돌려주면서 ‘굴복’하고 있으니 순응하는 모습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나)에선 ‘어둠’이 ‘풀벌레 소리’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니 ‘포용력’을 억지로나마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에서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 혹은 ‘전등’과 같은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 혹은 부딪치는 모습 등은 ‘어둠’이 아닌 ‘풀벌레 소리’가 보이고 있죠? ‘어둠’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근거가 없으니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습니다.

위의 ‘사후적 독해’ 부분을 열심히 읽은 학생들도, 5번 선지의 정오를 바로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지문으로 돌아갔어야 할 거예요. 이처럼 지문을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는다고 해서 선지를 바로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 시문학 문제입니다. 실전에서는 위에서 보여 드린 ‘실전 독해’ 정도만 가볍게 잡아주시고, 선지를 판단하면서 꼼꼼하게 독해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합시다. 물론 실전에서 이 독해를 가능하게 하려면, 평소 공부할 때는 ‘사후적 독해’와 같이 읽어보는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 44.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11%	7%	74%	5%

① 사물들이 지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구요...? 어디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나요? 오히려 ‘물상’들은 몸을 움직이면서 지상에서의 노동의 시간을 ‘즐거워’ 있습니다. 허용할 수 없겠네요.

② 역시 노동의 ‘고단함’이라는 것을 허용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네요. 그냥 그럴 듯하다고 허용해버리면 안 됩니다! 노동을 고단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근거’가 꼭 있어야 해요! 화자는 이 지문의 물상들이 노동의 시간을 오히려 ‘즐거워’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③ ‘기존의 사물들’은 또 어디 있나요? ‘반가움’이라는 반응은요? 그냥 물상들끼리 즐겁게 움직이는 모습 외에는 나오고 있지 않아요.

④ ‘즐거워’ 지상의 잔치와 그 위에서 ‘즐거워’ 울림을 보이는 태양의 모습. 이 정도 근거면 ‘서로 어울려 생기를 띠는 모습’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죠?

⑤ 역시 ‘혼란’이라는 엄청난 반응을 허용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선지입니다.

#### 45. ③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2%	86%	6%	3%

① 그러고 있죠? ‘평소 관심을 두지 못했던’은 [D] 위쪽의 ‘되돌아간 소리’라는 것을 근거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비록 [A]에 대해 묻고 있지만, [A] 속에 있는 ‘텔레비전’에 대해 보충할 수 있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서 끌고 올 수 있다면 허용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② 선지 그대로 허용할 수 있죠?

③ 그냥 소리들, 통로들, 마음들을 ‘생각’하고 있을 뿐, 미안해하는 반응을 허용할 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네요. 애초에 [C] 부분을 ‘독해’해보면, ‘들리지 않는 소리’들은 소통을 잘 하고 있기도 합니다. 화자가 이들의 소통을 막고 있다는 내용도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거가 없으면 허용할 수 없다는 당연한 내용을 계속 묻고 있어요!

④ ‘텔레비전’을 끄지 않아 소리들이 되돌아갔던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죠?

⑤ ‘소리’가 ‘허파’ 속으로 들어왔다고 했으니 ‘내면 깊숙이’ 받아들인다는 내용을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 \*실전 Tip\*

이 지문의 문제를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면, 43번 문제를 하나의 그룹, 44~45번 문제를 하나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시의 ‘전체’적인 내용을 묻는 것인지, ‘부분’에 대해 묻는 것인지예요. 44~45번 문제는 43번 문제와 다르게 특정 시어나 시구를 꼭 집어서 묻고 있잖아요!

‘부분’에 대해 묻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각 지문을 한 번 더 읽게 됩니다. 선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부분을 ‘독해’해야 하고, 그렇게 5개의 선지를 모두 판단하다보면 지문 전체를 읽는 것과 다름없이 될 테니까요. 이렇게 ‘부분’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면 지문 ‘전체’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고, 이는 43번 문제처럼 지문 '전체'를 묻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평소 시문학 문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라면, '부분'을 묻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를 묻는 문제를 해결하는 식의 전략을 취하면 훨씬 빠르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② 현대시 독해 : '실전'에서는 큰 틀만 잡고 읽은 뒤 선지 판단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독해를 진행하면 되지만, 실전에서 이러한 독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평소 '사후적 독해'를 연습해두어야 합니다.

③ 풀이 순서 관련 tip : '부분'을 묻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32~34] ☆☆

〈보 기〉

「장끼전」은 '까투리'를 중심으로 남존여비와 여성의 개가 금지 같은 가부장제 사회의 문제를, '장끼'를 중심으로는 몰락 양반의 삶과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다양한 변화상을 형상화했다. 이 대목은 가족의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 몰락 양반의 출현과 향촌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신흥 부호의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흥 부호의 위세로 인해 빚어지는 신흥 부호와 몰락 양반의 갈등, 그리고 신흥 부호를 둘러싼 몰락 양반 간의 불화를 그려내고 있다.

이 작품은 몰락 양반과 신흥 부호를 대비하며 그들의 삶을 이야기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지문의 주제를 알고 있으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어요. 지문 읽어 봅시다.

'콩알 하나 없으니 주린 처자를 어이할꼬? 어쨌든 **협사촌**의 서대주가 도적들과 아래위 낭청을 다니며 함께 도적하여 부유하다 하니 찾아가 얻어 보리라.'

하고 협사촌을 찾아간다. 허위허위 이 산 저 산 어정어정 걸어가며 생각하되,

'이놈이 본디 큰 쥐로 도적질하는 놈이니 무엇이랴 부를꼬? 쥐라 해도 좋지 않고, 서대주라 해도 좋지 않으니, 이놈 부르기 어렵구나. **어떻든 대접함이 으뜸이라.**'

'장끼'라는 인물이 '협사촌'의 '서대주'라는 인물을 만나러 가는 모습입니다. 왜? 처자식이 굶고 있어서 양식을 얻으려고요! 그런데 '장끼'는 이 '서대주'를 '대접'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장끼'는 왜 '서대주'를 대접하려고 하나요? 그렇죠. 양식을 빌려야하니깐 알아서 기는 거죠. '장끼'라는 인물이 하는 행동과 말 하나하나 그 이유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길을 재촉해 협사촌을 찾아 서대주 집 문 앞에서 **장끼** 큰기침 두 번 하고,

"서동지 계시오?"

하며 찾으니, 이윽고 **시비 쥐** 나오거늘 장끼 문왈,

"이 댁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관리하시는 서동지 댁이오?"

물으니 시비 답왈,

"어찌 찾으시오?"

장끼 가로되,



“잠깐 뵈오리다.”

‘장끼’는 정말로 ‘서동지 덕’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서대주’를 높이고 있습니다. 양식을 꾸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네요.

이때 서대주 자녀의 재미 보며 아내와 함께 있더니, 시비 와서 왈,

“문전에 어떤 객이 왔으되 <위풍이 현양(軒昂)\*하고 빛갓 쓰고 옥관자 붙이고> 여차여차 동지 님을 뵈러 왔다 하나이다.”

서대주 동지란 말을 듣더니 대회하여 외현으로 칭하고, <정주(頂珠) 탕건 모자 쓰고 평복으로 나아가> 장끼를 맞아 예하고 자리를 정하니, 장끼 하는 말이,

“덕이 서동지라 하시오? 나는 양지촌 사는 화충이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부르기를 장끼라고도 혹 꿩이라고도 하는데, 귀객을 찾아 금일 만나니 구면처럼 반갑소이다. 한 번도 뵈적 없으나 평안하시었소?”

서대주 맹랑하다. 탕건을 어루만지며 답왈,

“존객의 이름은 높이 들었더니 나를 먼저 찾아 누지에 와 주시니 황공 감사하오이다.”

장끼 답왈,

“서로 찾기에 선후가 있는 것 아니니 아무거나 반갑다 못하여 진저리 나노라.”

하거늘 서대주 웃으며 온갖 음식으로 대접하고 고급사를 문답하며 장끼를 조롱하며 벗하더니, 장끼 콧소리를 내며 말하기를,

“서동지께 청할 말이 있노라. 내 본지 넉넉지 못해 오늘까지 먹지 못하다가 처음 청하운데 양미 이천 석만 빌려주시면 내년 가을에 갚으리니 동지 님 생각에 어떠시오?”

서대주 웃으며 하는 말이,

“속담에 ‘우마(牛馬)도 초분식(草分食)하고, 산저(山豬)도 갈분식(葛分食)이라\*.’ 하였거든 우리 사이에 무엇이 어려우리오?”

장끼 감사함을 칭사하고 양지촌으로 돌아가니라. 이때 서대주 노비 쥐를 명하여 창고를 열고 이천 석 콩을 배로 옮겨 양지촌으로 보내니라.

그러한 대접이 마음에 든 서대주는 웃으면서 양식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인물의 행위의 근거’를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어요. 쉽죠? 중간에 ‘시비 쥐’가 장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고, 서술자가 서대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것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외양 묘사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에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장끼’의 위풍당당한 성격, ‘서대주’의 예의를 갖추는 모습 등을 드러낸다는 점 정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각설. 이때 동지촌에 딱부리란 새가 있으되 <주먹뵈에 흑공단 두루마기, 홍공단 끝동이며, 주둥이는 두 자나 하고 위풍이 현양한 짐승이라.> 양지촌 장끼를 찾아가 오래 못 본 인사 하고 하는 말이,

“자네는 어찌하여 양식이 저리 풍족하여 쌀아 두었는가?” 장끼가 협사촌 서대주를 찾아가 양식 빌린 사연을 자세히 말하니, 딱부리 놈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네 마음이 녹녹지 아니하거늘 미천한 도적놈을 무엇이라 찾았는가?”

장끼 답왈,

“나도 생각이 있으나 옛글에 ‘교만한 자는 집이 망한다.’ 했고, ‘남을 대접하면 내가 대접을 받는다.’ 했고, 내 가난하여 빌리러 갔기로 저를 대접하여 서동지라 존칭하였더니 대회하여 후대하고 종일 문답하며 여차여차하였노라.”

하거늘 딱부리 하는 말이,

“자네 일정 간사하도다. 만일 입신양명하면 충신을 험담하여 귀양 보내고 조정을 농권하며 임금을 어둡게 하리로다. 나는 그놈을 찾아가서 서대주라 하고 도적질한 말을 하면 그놈이 겁내어 만석이라도 추심(推尋)하리라.”

장끼 답왈,

“자네 재주를 몰랐더니 오늘에야 알리로다.”

(중략) 이후의 상황입니다. ‘장끼’는 이렇게 무사히 양식을 빌려서 돌아가는데, 그걸 본 ‘딱부리’라는 인물이 와서 웬 양식이냐고 합니다. 일단 ‘딱부리’의 외양 묘사가 나오고 있다는 건 정리해 주셔야겠죠?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느낌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딱부리’는 ‘장끼’로부터 자초지종을 듣고 허세를 부리면서 ‘서대주’에게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뻔하긴 한데, 어떻게 될지 계속 읽어봅시다.

딱부리 웃으며 나와 협사촌을 찾아가, 구멍 앞에 나가서 생각은 많으나 이를 갈고 “서대주, 서대주.” 찾으니 이윽하여 시비 쥐 나오며 하는 말이,

“뉘 집을 찾아오시니까?”

딱부리 하는 말이,

“네 멍새이 무엇이냐? 이 집이 아래위 낭청으로 다니며 도적질하는 서대주 집이냐? 나는 동지촌 사는 딱장군이니 와 계시다 일러라.”

하거늘 쥐란 놈이 꼴을 내어 대답하고 들어가 고하니, 서대주 크게 성내고 분부하는 말이,

“어떤 놈이든지 잡아들이라.”

하니 수십 명 범 같은 쥐들이 명을 듣고 딱부리를 에워싸고 결박하고 이 뺨 치고 저 뺨 치며 몰아가니 딱부리 애걸하며 비는 말이,

“내 무슨 잘못이 있다 이리하시오? 내 손주 노릇할 터이니 놓아주고 달아났다 하시오.”

한데 듣지 않고 잡아들여 서대주 앞에다 꿇리니 서대주 호령하되,

“이놈! 너는 어인 놈이기에 주인 찾을 때 근본을 해하여 찾으니 그중에 너 같은 놈은 만단을 내리라.”

하며 매우 치라 하니 딱부리 머리를 조아리고 애걸하며 빌더라.

- 작자 미상, 「장끼전」 -

그렇게 ‘서대주’에게 가서 허세를 부렸더니, 화난 ‘서대주’에게 엄청나게 혼나고 있죠? 이에 애걸하며 비는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서대주’로 대표되는 신형 부호를 서로 다르게 대하는 ‘장끼’와 ‘딱부리’, 즉 몰락 양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문제는 아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32. 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8%	6%	10%	1%	5%

① 외양 묘사? 우리가 체크했던 그 내용이네요. 바로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세밀한’이나 ‘인물의 속성’ 같은,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에서 고민하셨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세밀하다고 느낄 테니 ‘세밀한’을 허용할 수 있고, 인물의 속성은 외양 묘사라면 당연한 말이니깐요.

② 서술자의 개입? 만약 이게 있었다면 분명 체크를 했겠죠. 그런데 서술자의 개입 체크한 기억이 없으니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

다. 물론 ‘서대주 맹랑하다’와 같은 표현을 서술자의 개입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인물의 행동에 대한 호감을 표하는 건 허용하기 힘들죠?

③ 속담, 옛글이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장끼가 딱부리와 이야기할 때 등장했죠. 그런데 이 옛글은 내적 갈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대주한테 ‘대접한 이유’를 말해주기 위한 것이죠. 갈등이라는 건 소설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에, 자주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④ 과거와 현재의 대비? 이것도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놓쳤을 리가 없죠. 나온 적 없습니다. 초월적 능력도 헛소리구요. 우리가 이해한 지문 내용 속에서 초월적 능력이 낄 여지가 없잖아요.

⑤ 배경 묘사는 나온 적이 없죠? 심리 변화는 딱부리를 통해 허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 33. 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7%	12%	7%	69%

① 둘 다 서대주가 도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② 장끼는 대접을 해주고, 딱부리는 허세를 부릴 것이라고 했죠.

③ 장끼는 일관되게 잘해줬고, 딱부리는 허세를 부리다가 맞더니 미안하다고 울고불었죠.

④ 장끼는 서대주의 거처를 확인할 때 ‘서동지’라는 표현을 쓰며 대접을 했고, 딱부리는 건방진 표현들로 불렀으니 허용할 수 있겠네요.

⑤ 장끼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서대주 찾아간 거 맞아요. 그럼 딱부리는? 애도 결국 곡식 얻으러 간 거죠. ‘허세 부리면서 뭐라하면 줄 거다!’라고 했으니깐요. 도둑질을 별로 다스리고 교화하는 그런 내용은 지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이해해서 선지를 빠르게 지워낸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34. ④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3%	12%	78%	2%

① 처자식을 살리기 위해 양식을 빌리고 있으니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허용할 수 있겠죠.

② 시비를 부리고, 복색을 갖추고, 외현이라는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걸 근거로 한다면 서대주 같은 신흥 부호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알 수 있겠죠.

③ 장끼와 딱부리라는 몰락 양반이 서대주라는 신흥 부호를 대하는 방법이 다르니 의견 차이를 허용할 수 있겠구요.

④ '시비 쥐'가 골을 내는 장면을 봅시다. 시비 쥐는 왜 골을 내고 있나요? 딱부리가 돈이 없어서? 아니죠. 딱부리가 건방진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열 받은 거죠. 애초에 딱부리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 길도 없었니까요. 심리의 근거를 통한 내용이해!

⑤ 다른 쥐들을 부리고 있으니 신흥 부호의 위세를 허용할 수 있겠네요. 모든 선지가 내용이해 + 허용 가능성 평가라는 기본 원칙에 의거해서 해결된다는 점 이해하면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point\***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근거'가 있어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여러분의 머릿속이 아닌, '지문의 내용'에서 나와야 합니다.

② 소설 독해 : '누가, 어떤 행동/심리를, 왜' 보이고 있는지 생각하며 내용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때 '외양 묘사, 배경 묘사'와 같은 묘사는 '인물의 심리' 혹은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므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이용하도록 합시다.